



‘꿈을 닮아가는 기업’ 넷다이버(주)

‘큰바위 얼굴’이란 소설처럼, 먼 미래의 회사,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미디어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넷다이버(주) (대표 이준호). 아이디어로 출발해 벤처 창업에 이르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해 온 넷다이버를 방문했다.

“Value,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Vision, 하나의 비전을 목표로 공유하며, Victory,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3V 경영전략은 지금의 넷다이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시원스레 웃으며 말을 꺼내는 이 대표.

넷다이버는 개인미디어 기반의 웹2.0 플랫폼을 비롯,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모든 블로그의 게이트웨이Gateway 확보 및 개방, 공유, 협력, 참여의 web 2.0 네트워크 플랫폼인 블로그메카를 구축함으로써 포털중심의 온라인 미디어에서 개인미디어 중심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UCC 퍼블리싱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웹2.0의 ‘개방과 참여’라는 트렌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넷다이버는 오픈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한다.

“지난 해 11월 SVI를 통해 ‘중소기업청 BI기술벤처창업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좌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벤처창업을 하신 모든 사업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 않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SVI를 통해 가려운

곳은 모두 긁은 셈이 된 거죠”라고 말하는 이 대표는 목표대로 지난해 SVI에 보금자리를 텃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블로그, 태그 검색 솔루션 및 디렉토리 검색, 블로그 퍼블리싱 솔루션, 블로그 컨설팅 및 IT,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컨설팅까지 기술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기술 만큼 포부와 신념도 당차고 열정적이다.

“우리의 가치는 1조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대표는 장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꼼꼼히 세워놓고 있다. 우선 넷다이버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각종 세미나, 교육 참여 등 꾸준하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연구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보해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과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R&D부분에 주력함과 동시에 개인미디어 기반의 웹2.0을 개발하고 있다.

올 6월,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넷다이버의 기술이 런칭되면 본격적으로 ‘엔드 유저’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용 솔루션을 런칭할 계획이다. 또한 매 분기별 서비스가 런칭 될 수 있는 로드맵도 그려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직원 하나하나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영이념과도 부합하고 넷다이버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서비스로 가기 위한 지름길인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자는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처럼 직원 모두가 하나의 비전을 좇아 닮아간다면 그 꿈은 이미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 대표의 말처럼 젊은 기업 넷다이버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주)위드인터페이스

산업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주)위드인터페이스는

지난 해 12월 창업한 신생기업이다. 그러나 창업 일주일만에 물류 무정체 SW 개발 건을 수주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지개 켜는 봄이 디지털단지에 가득한 날, 패기와 열정으로 업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주)위드인터페이스 박부영 대표를 만났다.

“우선은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의 표준기술을 선도하는 전문 회사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이를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시장에서도 우위를 지키는 수출지향성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큰 목표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 100일을 갓 넘긴 회사이니만큼 활력이 넘치는 위드인터페이스. 하지만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창업자금 마련도 문제였지만 플랜트산업의 공장자동화 시장동향이나 기술자료 수집조차도 쉽지 않더군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녀도 봤지만 이 분야의 통계자료나 데이터가 없어 결국 외국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만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것이기에 더 성공가도를 향해 달리는 위드인터페이스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되기 위해 개발 인력구성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탄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있지만 정보와 인재가 미래형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고집이기도 하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해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가 진행한 <기본이 강한 벤처 만들기> 교육과정을 수강했는데 여기서 초보 창업자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경영지원 컨설팅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접할 수 있었다.

“아이템과 기술의 기반은 잡혔지만 초기에 벤처창업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어려웠어요. 시기상으로도 시행착오를 거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금부부나 심적으로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때였거든요.”

이 대표는 교육과정에서 얻은 알찬 정보를 창업 후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책임수행제가 이 중 하나이다. 팀원 각자의 책임성을 배가하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 운영 시스템인데 이때 구성원은 팀과 자신의 문제점과 장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영과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바로 부각,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이 같은 장점을 근간으로 (주)위드인터페이스는 올해 탄탄하고 건설한 회사 구조를 갖추고 안과 밖의 구조화 작업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저희가 일하는 분야의 제품과 기술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동기와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동료들의 의지와 열정이 같이 수반된다면 그 어떤 사업 분야든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각오를 밝히는 박 대표. 그의 열정이 미래형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되어 빛을 발하는 위드인터페이스가 되기를 기대한다.

